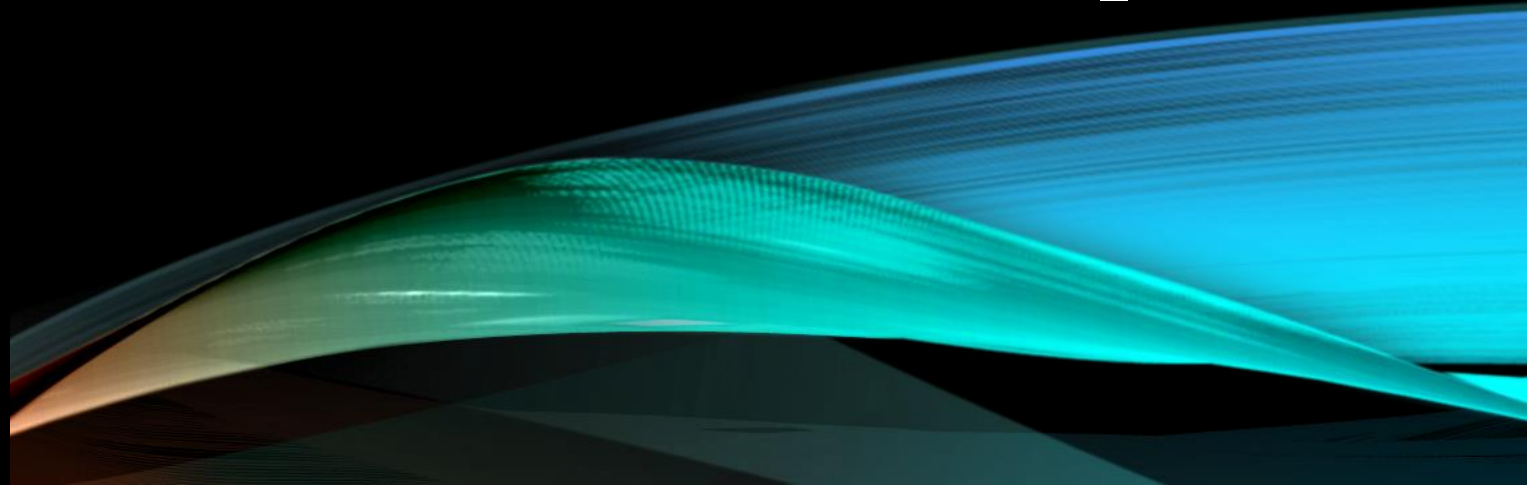




클라우드 기반 IoT 도난 방지 모니터링 서비스

TEAM_ARASAKA



문제 정의

국제

‘스릴러’로 변한 동남아 여행...소매치기 당하다 다친 한국인, 결국 사망

작년 한해 해외여행 안전 영사콜센터 신고 하루평균 568건 ...도난·상해 등 사건 사고 접수 2년 새 5배 증가

일본, 베트남, 미국, 스페인, 필리핀 순으로 많아



[평택= 서태호 기자] 해외여행 안전 영사콜센터(이하 '영사콜센터') 신고 건수가 지난해 하루평균 56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.

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(더불어민주당, 평택시 갑)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사콜센터에만 총 20만 7,25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2021년 대비 28.7% 증가한 수치다.

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·사고 또는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, 신고 접수 후 해당국가 재외공관 등으로 사건을 이관하거나 현장에 파견하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

▲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(더불어민주당, 평택시 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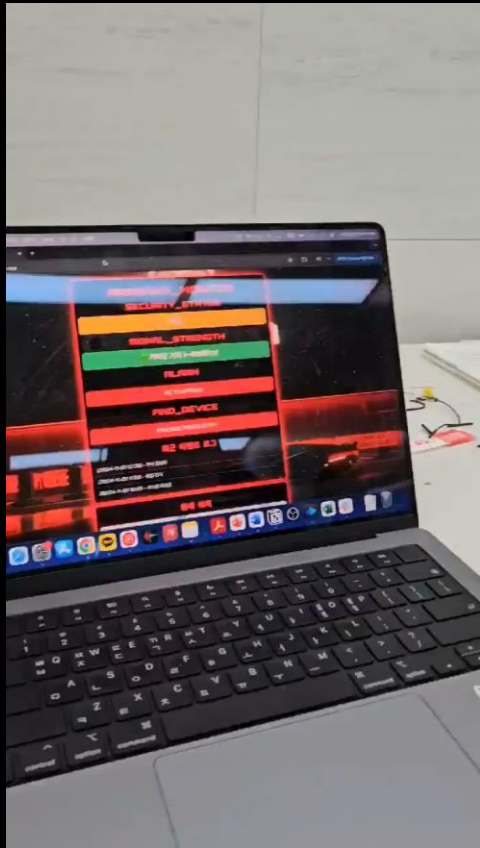
많이 본 뉴스

- 1 20년 시무 목사 "다른 목사도 소속 다르다고 도와
- 2 '뉴진스 최후통첩 D-DAY' 하이라이트 앞 근조화환
- 3 발언하는 나경원 의원
- 4 발언하는 정청래 위원장
- 5 수원시 영통구 박사승 구청장, 출산장려와 진로 사

스토리보드

- 첫번째 상황 – 백팩 매고 여행 중, 모르는 사이 지퍼가 열리고 도난 당하는 상황
- 두번째 상황 – 가방을 통째로 소매치기, 도난 당하는 상황

실제 동작 영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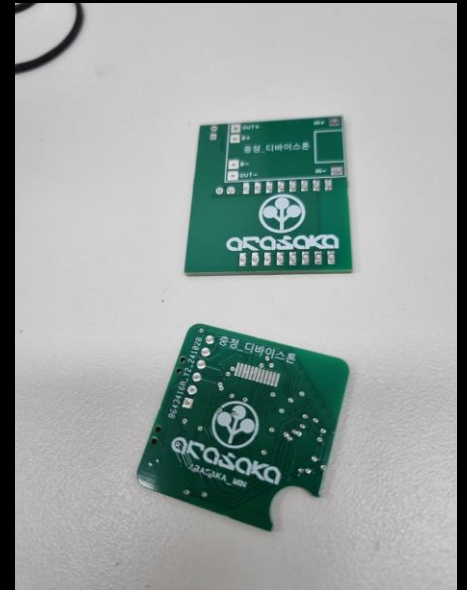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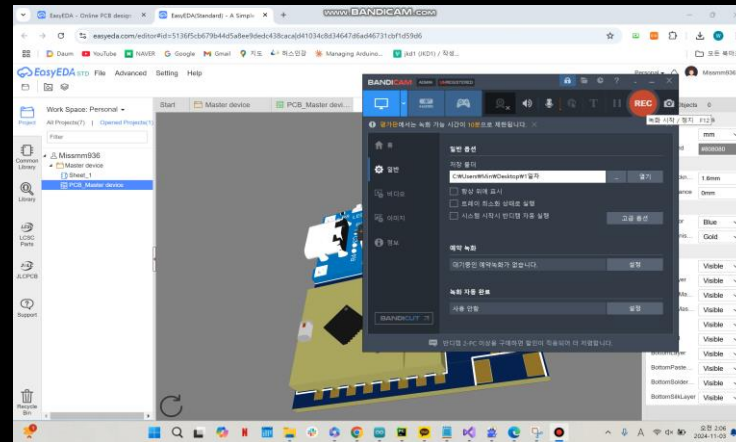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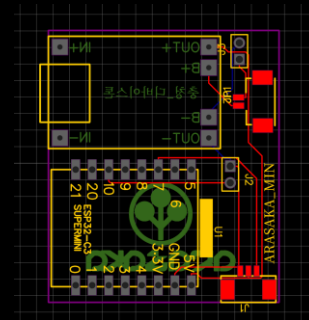


핵심 기능

- 엣지 디바이스와 홀 센서로 도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



- 직접 설계한 PCB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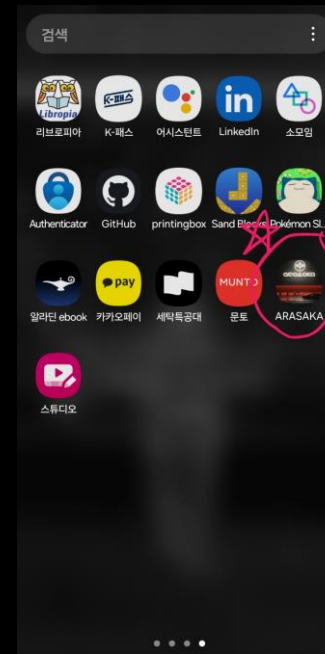
핵심 기능

- 클라우드 서비스

<https://arasakkr.netlify.app/>



- 앱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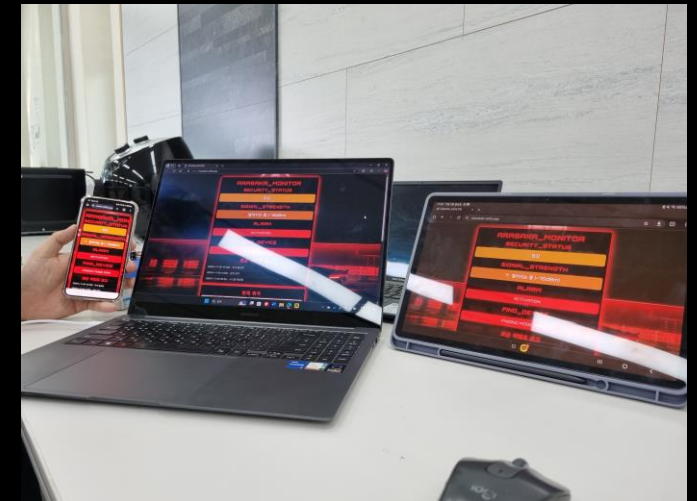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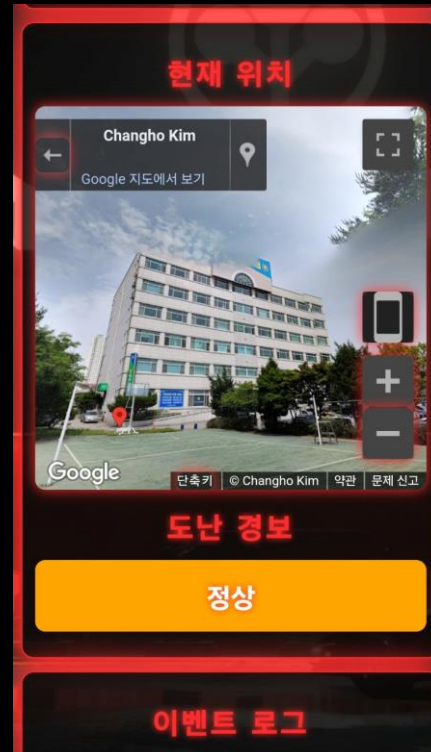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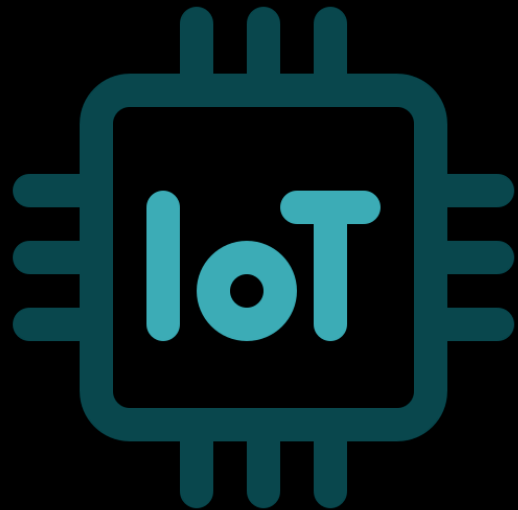


핵심 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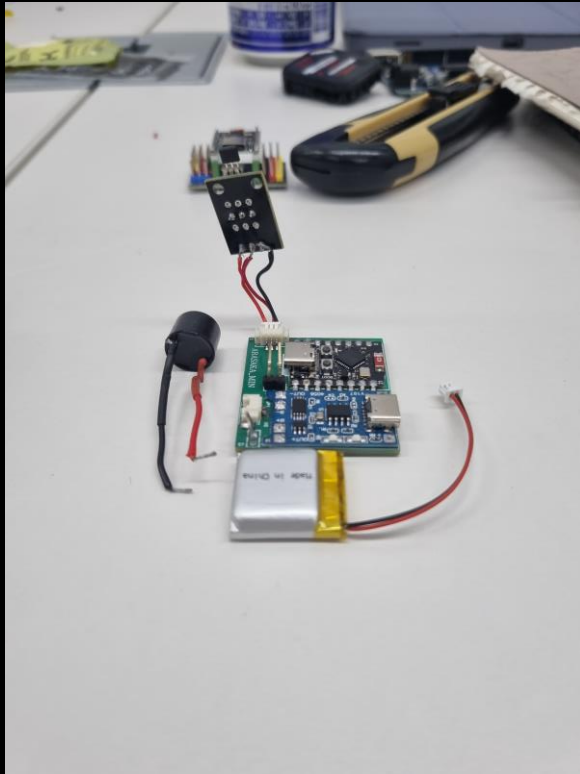
사후 대처 중심의 IOT
기반 도난 방지 솔루션

구글 API로 로드뷰 지원

그 어떤 디바이스에서
도 활성화



제품 가격



총합 **7700원**

=> 높은 비즈니스적 가치

차별점



- 기존의 가방 자체의 물리적 잠금 장치 및 숨겨진 지퍼

=> 계속 꺼내고 넣기 매우 불편하며 전부 사전 대책

- IOT,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사후 대책

차별점 (경쟁 제품)



애플 에어테그



GPS 기반 디바이스




로컬 웹서버 사용 프로젝트



사회적 가치

- 여행객의 **안전**을 지키며 여행의 불안감 해소
- 상용화시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님



IOT 및 클라우드 기반 도난방지 모니터링 시스템

TEAM_ARASAKA

감사합니다